

인도네시아 아쨌(Aceh) 분리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제대식**

I. 머리말

동남아의 거대한 다 종족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5년여 동안 엄청난 변화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 난국이 계속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32년간 지속되어 온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정권이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1999년 9월 이후로는 동티모르(East Timor)가 주민들의 78.5% 찬성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것에 고무된 아쨌(Aceh) 지역과 빠뿌아(Papua)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깔리만탄 섬에서는 이주민인 마두라족과 원주민인 다악족 사이에 종족갈등으로 인한 유혈충돌이, 말루꾸 지역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취임 직후 각종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대통령은 돌출된 행동을 빈번하게 자행

* 이 글은 2001년도 한국동남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당시 유익 한 논평을 해 준 신윤환 교수와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성심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지역통상과. dsje@ysu.ac.kr

함으로써 정국을 극도로 혼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조달청 공금 350억 루피아 횡령사건과 아체지역 지원을 위한 브루나이 국왕의 후원금 200만 달러 착복사건에 연루되어 2001년 7월 21일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로부터 탄핵되었다. 이어서 MPR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로 제 5대 대통령에 취임한 투쟁인도네시아민주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총재이자 부통령이었던 메가와티 수까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 또한 그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던 1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민간의 외채상환, 각종 개혁 프로그램 실행 지연으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갈등, 치안불안, 실업문제, 부정부패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보듯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세는 미래가 불투명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아체지역과 빠뿌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리독립운동의 양상은 동남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 지역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체지역 또는 빠뿌아지역이 분리 독립할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유고화' 시발을 의미하며 그 여파는 현재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동남아의 다른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수마트라섬 최북단에 위치한 아체특별주는 면적이 55,390 km²(인도네시아 전체면적의 약 2.7%)로 약 400여 만 명(전체인구의 약 2%)이 3개 市 8개 郡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메카의 베란다(serambi Mekah)라고 불리어질 만큼 이슬람교가 주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곳은 원주민 전체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원주민의 약 85%가 아체족이며 그 외 가야족과 가야알라스족을 비롯한 6개의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1976년 12월 4일¹⁾ 하산 띠로(Hasan Di Tiro)를 중심으로 아체이슬람공화국

1) 하산띠로가 이 날을 GAM 선포일로 정한 것은 그 자신이 아체술탄왕국의 마지막 통치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사촌인 평꾸 마앗띠로(Tgk. Maat Tiro)가 1911년 12월 3

(RIA: Repu- blik Islam Aceh)²⁾ 추종세력들이 독립아체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을 선언하고 수마트라아체국민해방전선(NLFAS: Nasional Liberation Front of Aceh Sumatera) 정부조직을 발표³⁾ 할 때만해도 아체의 분리독립운동 동조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1979년 하산띠로와 그의 가족이 아체를 떠난 후 계속 게릴라전을 전개해왔던 핵심참모 자이니 압둘라(현 NLFAS의 보건부장관) 마저 1982년 아체를 탈출함으로써 분리독립 움직임을 공백상태에 빠졌던 아체지역에서, 1999년 말 지역 인구의 1/4 이상이 아체의 앞날을 결정할 국민투표 개최를 요구⁴⁾ 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답은 GAM⁵⁾ 세력 집안을 위한 군작전지역(DOM: Daerah Operasi Militer) 실행과정에서 발생된 현지파견 군인들의 인권유린, 경제착취로 인한 강한 적대감 형성, 문화충돌로 인한 사회균열, 그리고 수하르토정권 붕괴이후 정부의 후속조치 미비와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생들과 인권단체의 활약 및 GAM 세력의 대(對) 인도네시아 교란작전의 성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 아체항쟁 에서 숨진 역사적 사실을 강조시키고, 그가 술탄왕국의 계승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 2) III 장 1. 아체반란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참조.
- 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마트라, 아체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고,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에 대한 순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발표와 함께 우리와 우리 국가는 자카르타에 있는 자바정권의 식민통치 지배로부터 독립함을 선언한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하산띠로가 향후 건설할 국가명에서 이슬람의 명칭을 배제한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에 알레르기 현상을 보여왔던 국제정치 분위기를 고려하였고, 국가명에 수마트라를 붙인 것은 국가 영토로 아체지역 외에 일부 수마트라 지역도 포함시키기 위함이었다(Sulaiman: 26~27).
- 4) 아체 州 인구의 약 1/4인 1백여 만명의 주민들이 1999년 11월 州都 만다아체에 모여 국민투표개최 지지를 위한 지역주민 결의대회(SUMPR: Sidang Umum Masyarakat Pendukung Referendum)를 가짐으로써 국내외에 분리독립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열망을 표출시켰다.
- 5) 독립지지자들은 그들을 GAM으로 칭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는 그들을 치안교란운동(GPK: Gerakan Pengacau Keamanan) 집단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체분리독립 움직임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동을 형사문제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독립세력⁶⁾들이 아체지역을 인도네시아공화국단일국가(NKR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로부터 분리독립 시키고자 하는 배경과 분리독립운동의 전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리독립세력들이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해본 후, 전개양상을 그 특성에 따라 3시기: 아체반란, 수하르토 정권 몰락 이전, 몰락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아체분리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GAM측과 인도네시아 정부측을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II. 분리독립운동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아체 분리독립세력들은 중앙인도네시아국가위원회(KNIP: Komite Nasional Indonesia Pu-sat)가 인도네시아독립준비위원회(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의 대표자와 일제 남방군 사령관 데라우찌 간의 결정사항⁷⁾을 근거로 1945년 8월 19일 아체지역을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 합

6) GAM 선포 당시 아체분리독립을 위해 투쟁해왔던 세력이 현재 3개의 파벌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벌은 현재 아체 내 여러 지역에서 무력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는 아체독립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하신타로 파벌이다. 그 외 1985년 투쟁노선 차이로 GAM에서 축출 당한 후사이니 하산(Husaini Hasan)과 고훈에다 건강악화 상태에 있는 하신타로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한 11명의 GAM 지도자들이 1997년 결성한 GAM정부위원회(MPGAM, Majelis Pemerintahan GAM)와 1981년 화우지 하스비(Fauzi Hasbi)가 중심이 되어 GAM에서 분리해 간 아체이슬람공화국 파벌(RIA: Republik Islam Aceh)이 있다.

7) PPKI의 정·부의장이었던 수카르노와 핫타 그리고 라지만은 1945년 8월 12일 일본의 남방군 사령부가 있던 사이공에서 사령관인 데라우찌로부터 독립보장을 약속 받음과 동시에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를 舊네덜란드령 동인도지역으로 한다는 결정사항을 받아들였다(양승윤 1998: 56; Kartodirdjo S. dkk 1975: 23 참조).

류시킨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고있다. 이는 아체인들이 그들 지역에 대한 네덜란드 식민통치 역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까지 인도네시아 군도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네덜란드는 당시 세계 후추 공급량의 1/2 이상을 생산해 온 아체지역(Ricklefs 1991: 217)이 계속해서 아체 술탄의 지배하에 있도록 방치해 두지 않았다. 1871년 '수마뜨라에 대한 영국-네덜란드 조약(Anglo- Dutch Treaty)' 체결을 통해 수마뜨라섬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네덜란드는 아체지방에 대한 식민지 공략에 적극성을 띠었고, 이는 곧 인도네시아 군도의 마지막 식민지 전쟁인 아체전쟁(1873~1903)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네덜란드 식민통치역사에서 가장 대규모로 원정대를 투입한 네덜란드는 막대한 희생을 치른 끝에 1874년 왕국의 수도인 꾸따라자(현 반다이체)에 입성하여 아체술탄왕국을 합병하였고 술탄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체왕국의 마지막 술탄인 무함마드 다우드샤(M. Daudsyah)와 폴림 무함마드 다우드(Polim M. D.) 사령관을 중심으로 많은 아체인들은 계속하여 저항하였다. 특히 명꾸 찌디티로(Tgk. Cik Di Tiro M. S.)를⁸⁾ 지도자로 한 올라마들의 끈질긴 게릴라전은 지하드로 명명되었다. 이슬람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아체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한 네덜란드 원정군은 스노우크 호우드그로니에(Snouck Hourgronje)의 아체사회 분열정책과⁹⁾ 반 호이츠(Van

8) Cik Di Tiro는 아체주민들로부터의 원활한 군자금 확보를 위해 술탄의 상징인 씨구레우엥(Sikureueun) 직인을 받았다(Sulaiman 2000: 11). 이 아체왕국의 공식 직인에는 Sultan Iskandar Muda의 딸로 술탄직을 물려받은 사피아푸딘사를 비롯하여 몇몇 후대 술탄의 이름이 새겨져있다(Hars 1992: 20). Cik Di tiro의 직계자손 성년 남성들은 아체전쟁에서 모두 전사하였는데, GAM의 선포한 Hasan Di Tiro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체지방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성인인 Cik Di Tiro의 손녀였음을 내세워, 자신이 건설하고자 하는 이슬람 왕국이 아체왕국을 계승하고 있으며 자신은 제 41대 술탄임을 자처하고 있다.

9) 올라마들의 광신적인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들은 자바의 부빠띠와 미낭까바우의 뽕홀루 처럼 그 지역의 세속적인 지도자인 율레발랑들을 부추겨 아체 이슬람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 시켰고, 결국 아체인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Heutsz) 아제총독의 강공 작전 및 술탄과 빨림 사령관 가족에 대한 인질전략을 통해 마침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 아제전쟁을 종결시켰다. 다우드사와 빨림 사령관이 1903년 항복한 후 네덜란드 원정군에 협조적인 울레발랑(Uleebalang)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들어섰지만, 쩌디띠로의 후손 및 일부 추종 울라마들은 1911년까지 게릴라전을 통해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 후 전쟁은 종료되고 아제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게되었지만 아제인들의 심적 저항은 계속되어왔다.¹⁰ 분리독립세력들은 아제인들의 지속적인 저항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분 삼아 그들의 과거 식민통치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와 핫따(M. Hatta)의 독립선포와 동시에 탄생한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에 아제지역이 합류하게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분리독립 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함이다.

2. 경제적 배경

아제북郡 아룬(Arun)지역에서 1969년 발견된 액화천연가스(LNG)는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약 65%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루뻬아화 폭락 등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수하르토 초기 정부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1968년 자신이 조각한 내각을 개발내각(Kabinet Pembangunan)으로 명명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수하르토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추구하면서도 親서방정책을 내 세워 대외부채를 연기 또는 조정하고 있던 시기였다(제대식 1999: 141~142).

인도네시아 석유공사(Pertamina)와 계약을 체결한 모빌오일(Mobil Oil)이 북아제郡에서 17조 큐빅 피트(SCF) 상당의 매장량을 가진 천연가스 유전을 발

10) 1926년 아제지역 네덜란드 최고행정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아제인들의 저항의식은 꺾이지 않고 있다. 아제인들은 군사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정복당하지 않았다” (Sjamsuddin 1999: 27).

견하자, Pertamina와 Mobil Oil은 1973년 아룬(Arun)회사를 설립하였다(Sulaiman 2000: 4~5). 1977년 생산에 들어간 아룬유전으로부터 얻은 연평균 21억 달러의 국가수익은(Ali 1999: 10) 1980년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한 발판이 되었으며, 마침내 수하르토를 '개발의 아버지'로 추앙 받게 만들었다. 아체지역에서의 천연가스 개발금의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자, 아체 출신 대학생들은 개발 수익금의 10%를, 주의회에서는 20%를 아체 주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아체지방에는 천연가스 외에도 많은 산림이 개발되고 있었다. 州 면적의 3/4인 413만 ha 산림이¹¹⁾ 그 동안 19개의 수하르토 측근 기업에 의해 무차별 개발되어 왔다(Al-Chaidar et al. 1998:13). 그 결과 산간지방에서 얻은 수확물로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타격이 되었으며, 1995년과 1996년에 약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재산손실을 가져온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다(Aiyub 1999: 102~103).

아체지역의 부존자원 개발사업을 장악해온 자카르타 사업가들은 아체지역 주민들을 활용하지 않고 1975년 이래로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이 지역에 이주시키기 시작한 자바인들의 일부를 생산현장에 투입시켰다. 1991년까지의 자바 이주민 숫자는 당시 아체 인구의 약 3%인 십만 오천 명이였다(Hars 1992: 255). 수련된 기술자가 없고 기술전수에 많은 시일에 소요된다는 명분 하에 자바출신의 중국계 기업인들이 개발사업에 아체인들을 배제한 일은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존자원 개발수익금 분배의 불공정¹²⁾으로 인해 자바

11) Forum 에서는 산림면적을 320만 ha로 언급(40호: 30).

12) 아체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수익금에 대해 아흐마드(Ahmad. M)와 Forum誌는 1997년 한 해 동안 아체지역으로부터 얻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은 석유 1,679 척, 액화천연가스 3,135 척, 프로판 가스 344 척, 부탄가스 348 척분량의 수출을 통해 26억 달러 (30조 루피아)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아체주에 할당된 연간 예산은 수입의 0.34%인 약 1021억 루피아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Forum 2001: 30; (Al-Chaidar et al. 1998: 12~13), 그 신뢰도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심의 중앙정부에 약감을 가지고 있던 아찌인들에게 더욱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표 1〉 아찌주의 1995~1997 예산안 (단위 10억 루피아)

	지역 총수입	석유가스 수입	수익금 배분	비율
1995년	17,059	5,928	521	3.05 %
1996년	14,637	6,404	574	3.92 %
1997년	17,092	7,942	669	3.92%

(Statistics Indonesia: Aceh Special Region; Tippe 2000: 49)

3. 사회·문화적 배경

1970년대에 시작된 부존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업화와 이주정책은 아찌인들의 생활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슬람적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다. 과거 아찌인들은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말림디와(Malem Diwa) 설화를 일상활동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왔다. 1945년 혁명기 초에 신생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큰 지지세력이었던 다우드를 중심으로 개혁성향 단체인 전아찌올라마연합(PUSA: Persatuan Ulama-ulama Seluruh Aceh) 소속 올라마들이 아찌귀족 출신의 행정관료였던 올레발랑 계층을 무력으로 제거하고 아찌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PUSA가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 중 이슬람종교를 수호해 온 집단이었다는 인식이 아찌 주민들 사이에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Aiyub 1999:89; Ricklefs 1991: 330~331).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산업화되고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생의 목표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바뀌었다. 이주민이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부녀자들은 매춘을 하고, 농경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도덕적 지주 역할을 했던 올라마들은 물질적 유혹에 빠져 현실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극도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Aiyub 1999:100~101). 1989년

GAM을 설득하기 위해 올라마들이 분쟁지역에 파견되었을 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도 올라마들은 정부 측 인사라는 인식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의 비중이 강화됨으로써 지방정부가 마치 회사경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졌으며, 관료들의 비즈니스 지향성이 나타났다. 현재 아체에서의 주요결정권은 관료에서 사업가로 옮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아체주민들을 지방정부와 올라마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체인들은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대한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국가법 시행 결과로 폐지된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법 실시를 요구해 왔다. 이는 국가법이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비비가 1999년 9월 23일 아체에 이슬람과 관련된 특별권리¹³⁾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 것도 아체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정부가 아체지역에 이슬람법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기독교인들이 많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보류하였지만 아체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산띠로를 비롯한 그의 추종세력들은 기독교권인 서방세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리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면서도, 아체지역의 이러한 정서를 인지하여 이슬람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인도네시아 군도 서부지역을 장악했던 술탄이스칸다르무다(1607~1636) 시대의 왕조와 같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투쟁해 오고 있다고 분리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13)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13개 법안 중 아체에 부여된 5개의 특별권리는 (1)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이슬람법 적용; (2) 일반교과과정 외에도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교과과정 강조; (3) 시골마을 행정 구조에 전통관습 요소 삽입; (4) 지방정책 수행에 있어 올라마의 역할 인정; (5) 경제분야에 이슬람법 적용 (Forum 2000 NO 38: 69, 72) 참조

Ⅲ. 분리독립운동의 전개

아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독립운동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우드의 반란, 1976년 이래 지속되어 오고 있는 하산띠로의 무력항쟁, 1998년 이래로 나타나고 있는 시민저항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아찌반란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혁명기¹⁴⁾가 끝나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군도는 의회민주주의경험기(1950년~1957년) 동안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지역반란이 군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1953년 9월 아찌지역에서 일어난 다우드 버르흐(M. Daud Beureuh)의 반란은 1949년 서부자바의 까르또수위르요(S. Kartosuwirjo)와 1951년 8월 남부 술라웨시의 까하르 무자까르(Kahar Muzakkar)가 전개한 다룰 이슬람(Darul Islam)운동¹⁵⁾과 맞물려 자카르타 정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찌지역의 군인과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은 다우드를 중심으로 PUSA 내의 울라마들은 공개적으로 자카르타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 다우드는 아찌지역에 뻘짜실라(Pancasila)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지역을 아찌자치국(NBA: Negara Bagian Aceh)으로 명명하였으며 까르또수위르요가 세운 인도네시아이슬람국(NII: Negara Islam Indonesia)의 일부¹⁶⁾라고 선언하였다(Ricklefs 1993: 372; Sjamsuddin 1990: 204~207).

14) 인도네시아 혁명기를 1945년~1949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베네딕트, 1992: 130), 연방인도네시아공화국(RIS)에서 통일된 헌법을 가진 새로운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바뀐 시점인 1950년 8월 17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Shadily 1980: 1438; Ricklefs 1993: 317 참조).

15) 정교일치와 신법통치를 행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운동(Dengel, 1995: 1~2; Shadily 1980: 754; Ricklefs 1993: 342~343 참조). 까르또수위르요와 무자까르의 다룰 이슬람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ijk 1993: 1~58, 143~204 참조.

16) 다우드는 1954년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까르또수위르요가 장악하고 있던 일부 서부자바

7년 간 계속된 아체반란이 발발한 것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재정복 야욕에 직면한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을 많이 지원한¹⁷⁾ 이 지역을 자카르타 중앙정부가 푸대접하면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 19일 KNIIP의 결정에 따라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은 8개의 州로 나누어 졌는데, 아체지방은 그 중 하나였던 수마트라州의 한 레시덴¹⁸⁾이 되었다. 그 후 1949년 11월 덴 하아흐(Den Haag) 원탁회의(KBM)이후 북부 수마트라 주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州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아체지역은 연방정부¹⁹⁾ 하에서 자바 외 지역으로는 유일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직속영토이었다. 하지만 1950년 연방정부가 해체되고 연합체였던 여러 공화국들이 NKRI로 통합된, 그 이듬해 아체지방은 자카르타를 수도로 하여 복원된 공화국정부의 조치에 따라 다시 북부 수마트라州의 한 레시덴으로 전락되었다(Hars 1992: 2~4).

州로의 승격을 계속 요구해 온 아체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중앙정부에 의해 묵살되자, 마침내 반란이 발발되었다. 아체 초대 주지사였던 다우드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사건에 많은 아체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역처럼 행정조직을 군대조직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가르또수위르요의 NII에 합류를 발표하였다. 당시 NII는 5개의 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부자바에 3개 지대, 남부 술라웨시 1개 지대, 아체지대가 그것이었다(Sjamsuddin 1990: 206) 참조. 1955년 1월 서부자바의 NII와 상의없이 아체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를 구성, 대통령에 가르또수위르요, 부통령 다우드, 국방차관 까하르 무자카르, 유엔대사 하산 띠로(1976년 GAM선언)로 정하였다(Sjamsuddin: 248~249) 참조

17) 1947~1948년 네덜란드군에 의해 인도네시아 군도의 대부분 지역이 점령당하였을 때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 중 유일한 미점령 지역이었던 이곳은 인도네시아 군과 민병대의 항전지역이 되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한 수카르노 대통령이 네덜란드군대와외의 전투를 위한 비행기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곳 주민들은 귀금속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임시수도였던 욕야카르따(Yogyakarta)가 함락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곳은 잠정적으로 임시수도가 되었다.

18) 네덜란드 식민통치 때의 행정구역으로 주와 군의 중간.

19) 1948년 렌빌협정 결과로 결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욕야카르따의 인도네시아공화국과 네덜란드 점령 하에 있던 5개 공화국(동수마트라공화국, 빠순단공화국, 동인도네시아공화국, 마두라공화국, 남수마트라공화국) 및 9개의 자치지역이 포함되었다(양승운 1998: 91~92 참조).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한 아제반란은 1956년 이 지역을 州로 승격 시킴으로써 진정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자비중심의 중앙정부에 강한 불만을 품어온 사프루딘, 낫시르(당시마슈미의 당의장), 하라합, 심볼론을 중심으로 수마뜨라 출신 인사들이 1958년 2월 서부 수마뜨라의 부깃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둔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1990: Pemerintah Revolusioner Republik Indonesia)를 결성하자, NBA 추종세력들은 이에 합세하였다. 수까르노와 중앙군부를 대표하고 있던 나수띠온(Nasution) 육군참모총장은 PRRI보다 NBA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NBA 추종세력들은 이슬람종교 이념으로 뭉쳐있을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아제종족주의 분위기에 편승해 있었기에 군사력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해 5월 자바의 실리왕이 사단과 디뵤네고로 사단 병력이 혁명정부 본부를 점령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NBA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NBA에는 다우드를 정점으로 올라마들과 세속적인 종교지도자인 주아마(Juama), 그리고 이들 두 집단을 추종하는 무장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있었다. 올라마들의 아제반란 합류동기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Juama의 참여동기는 아제지역이 주에서 라시텐으로 전략함으로써 그들의 세속적 이해관계에 많은 손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비교적 현실적인 Juama를 협상대상으로 삼았다. Juama 집단을 대표하고 있던 하산살레 또한 1956년 이미 아제지방이 주로 승격됨과 동시에 제 1사단인 '이스칸다르 무다(Iskandar Muda)' 사단이 창설되었으며 PRRI가 정부군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밀림에서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반란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하산살레는 NBA의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드의 허락없이 1959년 5월 아제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정부측 대표들과 협상을 하였다. 그는 아제주에 종교의 자유, 전통관습 및 교육에 대한 자치권, 경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정부군에 투항함과 동시에 아제반란은 끝났다고 발표하였다. Juama 측의 배신으로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정부군의 압박에 고심하고 있던 다우드와 추종 올라마들은 계속 무력항쟁을 하기 위해 1960년 NBA-NII를 해체하고²⁰⁾ PRRI와 함께 인도네시아 통합공화국(RPI: Republik Persatuan Indonesia)을 결성함과 동시에 이 지역을 아제이슬람공화국(RIA)으로 명명하였다. 다우드는 1961년 PRRI 지도자들이 정부군이 투항하고, 12,000 명 이상의 그의 추종 군인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항쟁을 하다가 1962년 4월 아체지역에 이슬람법(Syariat)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측의 언질을 받고서 산을 내려왔다.

아체주 의회가 지방정부에 관한 1965년 법령 18조에 의해 확정된 특별지역 지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아체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슬람법 시행을 위한 관련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류되어졌다가, 1974년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지방 정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국회법령 5조가 발표되면서 상기 법령 18조는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명명된 州名인 아체특별지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되었다(Ali 1999: 8~9). 제 2차 총선거에서 63%를 획득하여 국회를 장악한 수하르토의 군사정부가 1973년 4개의 이슬람 정당들을 통합하고, 黨名에서 이슬람의 색깔이 배제된 통합개발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으로 명명한 상황(제대식 1999: 144) 하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아체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가졌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슬람공포증(Islamphobia)'을 가지고 있던 당시 군부의 실세 알리 무르토프(Ali Moertopo)는 제 2차 총선거를 의식하여, 1970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이슬람 색채가 강했던 아체 州에 군 정보원들을 투입하였다. 이들은 이슬람 정당들의 지도자들을 구금하는 한편 당시 아체 사회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다우드를 장기간 외유시켰다. 아체지역 전 기관장에서부터 이장에 이르기까지 골카르(Golkar)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olkar는 PPP에게 패배하였다. 하지만 군부는 계속 이곳에서 그들의 입지를

20) 다우드와 그의 추종세력이 NBA-NII를 해체한 이유는 NBA 결성과 내각구성 문제에 있어 카르토수위르요츠크와 상의없이 결정하여 감정의 대립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강화시킴과 동시에 비(非) 정치단체인 개혁성향의 올라마 협의회(Majelis Ulama) 소속 올라마들과 전통적 성향의 올라마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아찌지역에서의 이슬람법 시행에 대한 군사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던 아찌반란 참가자들은 군부의 올라마 회유정략에 또 다른 자극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룬지방의 천연가스 개발사업의 후유증은 하산 띠로²¹⁾의 귀국과 함께 이 지역을 또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2. GAM 선언 후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의 전개양상과 정부의 대응

아찌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종교지도자 다우드를 비롯하여 RIA의 추종자 및 그들의 친인척들이 동참한 가운데 행해진 하산 띠로의 GAM 선언과 그 후속 조치인 NLFAS 정부결성 발표 및 동조세력 확산 활동은, 아찌지역에 주둔해 있던 육군 제 1사단 '이스칸다르 무다(Iskandar Muda)' 군대와 친 인도네시아 정부인사들의 GAM 추종자 색출 작업으로 이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NLFAS의 지도자들은 게릴라전으로 대항할 것을 결정하고 산 속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군자금 확보를 위해 추종세력으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는 외에도 아찌지역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국내의 기업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강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낼 세금을 GAM에게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1) 콜롬보 플랜 장학금으로 1950년 미국에 건너간 하산띠로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 법학 및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유엔 인도네시아 대표부 공보 부서에서 일을 하고있던 1953년 다우드가 아찌에서 다룰이슬람운동을 선포하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외국에서의 TH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친인척 및 친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아찌 수마트라(Aceh Sumatera) 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설파하고 있던 그는, 1971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중이던 아찌의 정신적 지주 다우드를 만나면서 그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Sulaiman 2000: 12~15).

인도네시아 군대의 압박과 무기 부족으로 게릴라전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하산띠로 NLFAS 정부수반은 평소에 구상해 왔던 유엔 및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한 분리독립운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기 직전 정부조직을 비상각료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들에게 지지세력 확충과 계속 게릴라전을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다²²⁾. 1982년 NLFAS 지도부의 와해²³⁾와 추종세력의 사기 저하로 인해 분리독립 움직임은 소멸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스웨덴으로 망명한 하산띠로와 그의 참모들의 타 지역 분리독립세력과의 연계전략과 세계인권단체를 통한 호소 정책은 1987년 리비아의 카디피 대통령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도움으로 하산띠로는 1989년부터 1990년 초 사이에 트리폴리 근교에 있는 캠프에서 400여명의 아체 젊은이들을 4 차례로 나누어 군사훈련시킬 수 있었다(Sulaiman 56~57; Ibrahim 1999: 140~141). 훈련을 마친 이들 젊은이들은 1989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아체 이주민 지원으로 태국에서 반입된 약간의 무기를 구입하여 아체로 잠입하기 시작하였다.

아체에서의 GAM 세력 와해 후 인도네시아 군부는 탈 이슬람화를 주도해 왔던 베니무르다니(Beni Moerdani) 통합군 사령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국방예산의 긴축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대 운영을 위해 그의 대표적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대적인 군조직 개편을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부가 다소 크리스천화(Kristenisasi)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리들(Liddle)과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에 의하면 베니는 사령관으로 재직 중 산뜨리(santri) 출신 군인들을 견제하고, 특전사와

22) 가족들과 국외로 탈출하기 직전 하산띠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무기를 확보하여 아체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무기를 반입하겠다는 약속을 고사하고 그 자신도 아체를 방문하고 있지 않다.

23) 비상각료위원 중 무기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하산띠로를 1980년 찾아 나섰던 후사이니 하산(Husaini Hasan) 제2 부수상은 현재 반(反) 하산띠로 노선에 있으며, 목파르 하스비 수상, 일야스 제1 부수상, 주비르 제 4 부수상은 그 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자이니 압둘라(Zaini Abdullah) 제3 부수상은 1982년 탈출하여 현재 스웨덴에서 하산띠로를 돕고 있다.

정보기관 출신 중 비(非) 무슬림 성향의 군인들을 군부 내 핵심요직에 포진시켜 (Liddle 1995: 18~19, 32~33; Ilyas 1993: 116) 이슬람 단체들을 탄압해 왔다고 하였다.

아제반란 당시 아제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州로 승격시켜 주었던 1956년에 창설된 '이스칸다르 무다' 제 1사단은 베니의 군조직 개편정책에 의해 1986년 해체되어 북부 수마뜨라의 메단에 주둔해 있던 '부깃 바리산(Bukit Barisan)' 사단에 통폐합되었다. 베니의 정책은 2가지 측면에서 제 2기 GAM 활동이 확산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하나는 통폐합으로 인해 부대규모가 축소되었고²⁴⁾, 또 하나는 아제 지역이 문화관습이 다른 바딕족(북부 수마뜨라), 미낭카 바우족(서부 수마뜨라), 멀라유족(리아우)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부깃 바리산' 1사단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Hars 1992: 404~405).

베니의 이러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아제지역은 1989년 이래로 타지에서 파견된 타 종족 군인들에 의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변하였다. 빠디에郡, 아제북郡, 아제동郡을 주요 근거지로 한 GAM 추종세력들은 그들의 동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협박하는 한편 친 정부인사들에 대해 태러 및 무기 확보를 위해 경찰 초소를 공격하였다. 이에 평화적 방법으로 아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라마들을 분쟁지역으로 파견하여 GAM 동조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GAM 추종세력 중 많은 사람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실직자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 속에 정부에 우호적인 올라마들은 더 이상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아니었다. 이어 파견된 동 지역 민간단체 젊은이들의 설득 또한 오히려 테러위협으로 이어졌다(Al-Chaidar 1998: 200~201).

여러 계층의 지역인사들과의 협의 끝에²⁵⁾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아제 주지사는 수하르또에게 공식적으로 역의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

24) 아제지역에 2개 연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북 아제군에 011 연대가, 주도인 반다아찌에 012 연대가 있었다.

25) 협의 대상이 된 지역인사로는 종교지도자, 학자, 여야 정치가, 군관계자 뿐만 아니라 아제

하였다. 당시 동 지역에 주둔해 있던 제 11연대(예하 부대 5개 대대)는 평화시를 위한 병력으로 3개 郡지역에서 관광서 습격, 학교방화, 교량 폭파, 재물 약탈 등 무자비하게 테러를 감행하던 GAM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체 전통과 문화관습을 잘 이해해 온 '이스칸다르 무다' 사단이 계속 아체지역을 관할하였다면 수많은 아체주민들이 집단학살, 약탈, 방화, 강간당하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백명에 달하는 GAM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1990년 7월 붉은그물작전(OJM: Operasi Jaring Merah)으로 명명된 작전 발표와 동시에 메단(Medan) 주둔 1사단 병력과 서부자바의 실리왕이 사단병력 그리고 특전사(Kopasus) 병력 등과 같은 외지 병력 6000 여명이 투입되면서 GAM 거점지역과 이웃한 민간인들은 인권유린을²⁶⁾ 당하기 시작하였다.

6개월이면 OJM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군부는 가족, 친인척 또는 고향 친구관계로 어우러져 있는 GAM 추종자들을 색출해 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작전 연장의 의미로 OJM II를 발동시켰다. GAM의 근거지인 산간내륙 지역으로의 도로 확보와 함께 지역정보 활용을 위해 첩자들을 이용(아체인들은 이들을 쭈악이라 부름)하였는데, 이들은 간혹 외지 군인들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GAM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특히 1995년 수하르토 사위인 뿌라보오의 특전사 사령관 재임 시에 파견된 예하 부대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다.

OJM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GAM의 추종자들은 1991~1995년 말 레이시아로 피신하였다. 1996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아체지역은 상당히 치안이 회복되어, 당시 아체지방경찰청장은 중앙정부에 DOM을 폐지하고 사회

반란(DI/TTI) 당시 반란군 사령관이었던 하산 살레와 RIA 수장이었던 하산 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26) 인권위원회가 1998년 8월 24일 잠정 발표한 DOM 기간 중의 희생자는 사망 781명, 실종 163명, 고문 368명, 강간 102명, 과부 3,000명, 고아 15,000~20,000이었으며, 건물 방화도 102건 발생하였 음(Widjanarko 1999: 278) 참조.

치안회복작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는 2 주일 후에 좌천되었다.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수하르또 군사정권이 아찌베리독립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3. 수하르또정권 붕괴이후 전개양상과 정부의 대응

피를 파위의 압력에 의한 수하르또의 갑작스러운 하야와 하비비(Habibih)의 대통령직 승계는 인도네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32년간의 신질서시대(Orde Baru) 동안 규제되어 왔던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는 철저하게 포장되었던 OJM과 관련된 인권유린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군부의 의한 인권탄압 문제를 국내 이슈로 부각시킨 집단은 시민단체(LSM: Lembaga Swadaya Masyarakat)와 자카르타 및 아찌에서 결성된 아찌 대학생 단체들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법률지원연구재단(YLBHI: 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과 시민전언재단(Yakoma. Yayasan Komunikasi Masyarakat)은 OJM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자카르타로 초청하여 국내 언론에 그 잔혹한 실상을 전하게 하였다. 시민단체들의 활동과는 달리 아찌 대학생 단체들은 자카르타 국회와 아찌주의회 앞에서 DOM 폐지, GAM과 관련된 정치범 석방, 인권탄압 연루자 처벌, 인권탄압 희생자 보상 등을 요구하는 데모를 연일 전개하였다.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 정치인들과 올라마들을 그들의 대열 속에 합류시켰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국내의 언론 또한 중앙정부를 압박하였다. 그 결과 당시 통합군사령관 위란또(Wiranto)는 1998년 8월 7일 아찌지역을 방문하여 DOM의 철폐를 발표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특전사 요원 250명을 8월 20일에, 659명을 그 달 말일에, 그리고 9월 10일에 300명을 철수시켰다(Sulaiman 2000: 99). 아찌지역에서 계속 전투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위란또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수하르또 하야 전과는 국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비비는 수하르또와 다르게 민간인 출신으로 IMF 통제하에서 인권유린에 대한 서방세계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군 내부에서도 아체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던 브라보오와 그 측근들이 수하르또 하야 직후 한직으로 축출되어 있었다.

외지 군대들의 아체지역 철수가 시작하자,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GAM 세력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동조자 확충을 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리비아에서 훈련받은 북아체郡의 록서마웨(Lhokseumawe) GAM 요원들은 지역 순찰 중이던 군인들을 습격하여 사살 또는 납치하곤 하였다. 아체지역에서의 치안공백을 우려하고 있던 부끼바리산 사단장은 납치된 장교들을 구출하고자 '권위회복을 위한 군작전(Operasi Satgas Wibawa)'을 발동하고, DOM 철폐 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력을 보조하기 위해 예하부대를 투입하였다. 작전 수행과정에서 GAM에 선동 당한 지역주민들과 충돌하면서 길거리에서 어린이, 부녀자들이 사살되었으며, 격분한 일부 군인들은 구금되어 있던 40명의 GAM 동조자들을 잔혹하게 고문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인권단체와 대학생 단체들을 격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에 대한 국외의 관심을²⁷⁾ 고조시켰다. 이에 당황한 군부는 깊은 사과와 함께 아체지역의 치안을 담당시키기 위해 1985년 부끼바리산 사단에 통합된 이스칸다르 무다 사단을 복원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비판적 지식층 그룹으로부터 강력하게 항의 받았다.

수하르또 하야 직후 DOM 폐지와 외지 군인 철수만을 요구해 왔던 아체주민들은, 1999년 3월 하비비가 아체를 방문하여 폭 넓은 지역경제 발전과 인권유린 희생자 가족에 대한 일부 보상을 제시하였지마는, 분리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권유린의 동기가 된 OJM 작전 명령 결정권자들²⁸⁾에 대한

27) 인도네시아 주재 호주대사, 영국대사가 현장을 보았고 CNN, ABC, 로이터 통신사, AFP가 현장 취재하였으며 국제적십자사가 록서마웨에 지부를 설치하였다(Sulaiman 2000: 109)

28) 아체주민들이 인권탄압의 계기가 된 OJM 결정권자로 지목하고 있었던 인물은 수하르또 전직 대통령, 파이살 만중 당시 통합군 사령관(1993년~1996년), 프리 수프리스노 당시 통

가시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하비비가 인권유린과 관련된 문제를 확고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1999년 대통령 선출에서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작전명령을 하달한 것은 명령권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군조직 자체의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대조직 유지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군부의 강경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비비의 동띠모르 주민투표 실시 허용으로 인한 자극과 분리독립을 원하는 지역정서에 편승한 아찌 지식층이 아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뿐이라는 정치선언을 하자, 각각 투쟁을 전개해왔던 대학생 단체들은 1999년 2월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시한 폭 넓은 자치권과 이스칸다르 무다 제1 사단 복원을 거부하고 총회아찌주민투표를 위한 정보본부(SIRA: Sentral Informasi Referendum Aceh) 결성을 결정하였다.

인권유린 문제로 지역 군부대의 활동 반경이 제한된 틈을 이용하여 GAM 요원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지부²⁹⁾ 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뻘짜실라(Pancasila)의 이데올로기가 아찌인들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역설하는 한편 1999년 총선거를 보이콧 할 것은 선동하였다. GAM 요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총선거 준비의 어려움을 보고 받은 자카르타의 통합군 사령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군중소요진압경찰(PPRM. Polisi Penindak Rusuh Massa) 부대를 GAM의 주요 근거지인 삐디에郡, 북아찌郡, 동아찌郡에 투입하였다.

AGAM과의 전투에서 격분한 PPRM의 GAM 동조자 색출과정에서의 잔혹한 행위와 학교 및 관공서 방화, 약탈, 암살, 자바 이주민 협박과 같은 일련의

합군 사령관(1988년~1993년), 베니 무르다니 당시 국방부장관(1988년~1993년), 샤르완 하미드 당시 011 연대장(1991년), 이브라힘 하산 당시 아찌주지사(1988년~1993년)이다.

29) 1999년 아찌독립군(AGAM. Angkatan GAM)은 압둘라 싸피이(Abdullah Syafii)를 총사령관으로 11개의 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테러 사건들은 아체 주민들을 또 다시 극도의 공포로 몰고 갔다. 그 결과 1999년 6월 10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머스짓이나 학교 건물로 피신하였다. 이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몰려 든 수많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PPRM의 철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사방에 걸어놓음으로써 PPRM 대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였다. 아체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단체들과 학생 단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PPRM 철수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시에는 1999년 8월 초 아체주민들의 총파업을 촉구하였다.

이에 당황한 아체 주정부는 아체사태의 진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스웨덴의 하산띠로 GAM 수반과 AGAM 사령관 압둘라 샤페이에게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DI/TII 출신 인사들, 그리고 하비비 및 위란또 통합군 사령관에게 아체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특사로 파견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GAM 측에서는 비록 많은 아체 주민들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종목표인 분리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무력항쟁을 포기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주정부와 군부에서 총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지만, 주민들의 자각 또는 비밀 테러의 두려움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체 지역의 일상 활동은 8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마비되었다.

아체지역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위가 극도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 10월 20일 선출된 와히드 대통령은 아체 문제를 새롭게 전환시켰다. 하비비 정권의 아체정책에 아주 비판적이었으며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 그리고 GAM 측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하스발라(Hasballah. M.S.)를 인권담당 장관으로 임명하여 GAM과 협상을 통해 아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스칸다르 사단 복원 취소와 함께 1주일 내에 PPRM 뿐만 아니라 아체에 남아있던 외지에서 파견된 군인들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통합군 사령관에게 명령하였다. 와히드의 온건정책은 주민투표 개최를 원하는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 산뜨리(Santri) 연합체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을 매우 고무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GAM은 각 지부를 통해 공공연하게 동조세력을 확

대해간 반면, 치안담당 병력이 절대적 부족했던 군은 자체방어에 급급하여 SUMPR 개최에 관여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위에서 보듯 하비비는 강력하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아찌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보다 폭 넓은 자치권을 제시하는 한편 무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AGAM³⁰⁾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반면에 와히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아찌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예로 2000년 5월 12일 비록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으로 GAM과 잠정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찌주의회에서 상정한 다룰살람 아찌 낭그로(NAD: Nanggro Aceh Darulsalam) 법안³¹⁾을 단일국가(negara kesatuan) 체제하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민회의회에서 탄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2001년 7월 17일 일부 수정된 NAD 법안을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아찌 낭그로(아찌어로 州의 의미)는 8년간 아찌지역의 천연가스와 석유 개발 이익금 중 70%를 할당받게 되며³²⁾ 9년째 부터는 석유수입의 35% 천연가스 수입의 20%를 가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5년 후부터는 주지사와의

30) AGAM(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반군으로 호칭)은 아찌북郡과 동郡 및 빠디에郡에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 약 5000명의 무장 병력이 1999년 초 이래로 압둘라 샤페이(Abdullah Syafi'ie)의 통솔 아래 게릴라전을 전개해 왔다. 압둘라 총사령관이 2002년 1월 22일 군작전 도중 사살된 이후로 리 비아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무자끼르 마나프(Muzakir Manaf)가 그의 자리를 승계하였다. 이들이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위의 3개 군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말레이 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31) 아찌주의회가 입안하여 2000년 3월 23일 국회에 상정한 법안으로 1999년 법령 25조, 44조를 거부하고 연방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낭그로 상징물과 기를 가지고 아찌어를 인도네시아어와 함께 공식언어로 사용하며 외교, 국방, 재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익분배에 있어 지방세의 100%, 부존자원 개발수익금의 90%를 요구하고 있다 (Kompas 24 Mar 2000; Forum No. 40: 31).

32) 1998년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수익금이 약 9조 5천억 루피아였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아찌주에 할당될 개발분담금은 매년 6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다. (Kompas 20. Jul 2001 참조).

33) 1980년대 초까지 신질서정부의 두뇌참모 역할을 하였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Centre

주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장, 군수, 시군 의원들을 아체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와히드는 반군에 대한 무력진압을 놓고 군부와 의견충돌을 빚어왔다. 수파르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수뇌부들은 휴전협정체결 후에도 무려 240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에 대해 군은 더 이상 경찰의 보조역할에서 벗어나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감행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얼마 전 와히드는 평화노력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식하고 제한적인 반군 소탕명령을 하달, 육해공군 정예요원 1천여 명을 아체지방에 투입하였다.

군부의 강력한 지지로 제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는 와히드와는 달리, GAM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던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를 비롯한 동티모르분리독립세력과는 달리, GAM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체분쟁은 국제분쟁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내반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가와띠는 2001년 9월 8일 아체지방을 방문하여 NAD 법령의 발효를 공포하고, 17년 전에 해체되었던 이스칸다르무다 사단을 2002년 2월 5일 부활시키는 등 아체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V. 아체분리독립운동의 평가

오늘날 아체지역에서는 분리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분리독립을 하고자 하는 NLFAS를 중심으로 한 GAM측의 당위성과 그들의 전략을 평가한 다음, 상대역인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부의 대 아체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GAM측의 분리독립 당위성 및 그들의 전략에 대한 평가

하산띠로를 중심으로 한 분리독립세력들은 아체지역이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 합류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KNIP가 1945년 8월 19일 신생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를 아체지역에서부터 이리안자야(현 파푸아) 지역에 이르는 전 도서지역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열광적으로 지지한 것은 다수의 아체 주민들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올라마들이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공화국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아체국가를 건설하려는 세속귀족계층인 홀루발랑의 무력저항에 부딪혀 약 1년 동안 1500여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동족상잔을 겪었지만(Pane 2001: 1~4), 이를 극복하고 혁명기 동안 인도네시아정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당시 아체사회에서 촉망받던 젊은 지도자였던 하산띠로 역시 아체지역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안에 포함된 사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따라서 분리독립세력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착취와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균열 때문에 분리독립 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체지역의 부존자원 개발로 인해 수하르토 정부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개발에는 매우 인색하였다. 아체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부존자원 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던 올라마들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아체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다우드의 아체반란 당시에는 비록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는 중에도 올라마들을 통한 평화적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는 아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에 반발하여 반란을 주도한 다우드가 NKRI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라마들을 존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아체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반미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리비아의 카다피 영향을 많이

받은 GAM 추종자들은 친 서방정책 실행과 부존자원 개발사업에 열중하고 있던 정부에 편승하여 물질세계를 탐닉하고 있던 율라마들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

분리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하산띠로와 NLFAS의 참모들은 아찌반란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항쟁정신으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던 다우드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바인에 대한 종족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산띠로의 이러한 전략은 동조세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친인척들이 외지 군인들에 의해 인권유린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장한 아찌지역의 신세대들은 자바중심의 국가의식 및 민족의식에 동화되기는커녕 민족공동체 의식을 혐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는 AGAM 중 다수가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가족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실직자 젊은이들이다. 결국 분리독립세력의 반자바 전략은 자바인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아찌인들의 지지를 배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부의 대 아찌정책에 대한 평가

오늘날 아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의 대 아찌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아찌지역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였던 혁명기 동안 인도네시아정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아찌지역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거의 없었다. 아찌반란을 주도한 다우드가가 1962년 아찌지역에 이슬람법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측의 약속을 믿고 저항을 포기하였으나, 뽀짜실라를 통한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국정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기독교 지역 반발을 명분 삼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군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따나아방(Tanah Abang) 후원자들은³³⁾ 경제우선정책 추진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당시 유일한 이슬

람정당이었던 PPP의 강력한 후원지역이었으며 막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아체지역에 경제 및 사회·문화면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였다.

하산띠로와 RIA 추종세력들의 GAM 선언과 NLFAS 정부조직을 발표로 시작된 아체분리독립운동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확대되어 갔다. 게릴라전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하산띠로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분리독립을 쟁취하고자 1979년 국외로 탈출하고, 1982년 NLFAS의 지도부마저 와해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분리독립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아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부존자원 개발분담금의 적절한 분배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아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비중심의 중앙집권정책과 이슬람 세력에 대한 당시 군부 실세들의 깊은 불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비아에서 훈련받은 GAM 추종자 중 일부(약 300명)가 고향으로 돌아와(Haris 1999: 57) 동조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을 때 인근의 많은 아체인들로 하여금 GAM에 대해 우호적으로 만들었다.

아체사회를 극도로 혼란시키고 있던 GAM 세력에 대한 군부의 진압 자체 또한 아체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체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아체 북郡을 중심으로 GAM의 유령부대³⁴⁾와 가장 과격한 AGAM인 아흐만 칸당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후견인으로 알리 무르도뽀, 수조노 후마르다니, 베니 무르다니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군부의 실세들로 집권여당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하였으며 반 이슬람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다. 떠나야방은 CSIS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34) 일명 로베르트(Robert) 부대라고 불리어 지고 있는 이 조직은 리비아 훈련병사 중 이탈자, TNI/Polri 탈영병, 아체 및 매단지역의 불량배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주로 여러 도심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체와 상가를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약탈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GAM의 군자금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GAM측에서는 이 유령부대를 GAM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TNI가 만든 특수한 조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Pane 2001: 247~256).

35) 그는 1980년대 말 많은 아체 출신 올라마들이 정부시책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당시 정부

(Ahmad Kandang) 부대가 관공서 습격, 학교방화, 교량폭파, 재물약탈 등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자, 당시 수하르트 정부는 친이슬람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분리독립 세력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6000여명의 외지군인들이 투입된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많은 아체 민간인들이 집단학살, 약탈, 방화, 강간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특히 단순히 GAM측 동조자라고 추정하여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 후 암매장한 행위는 아체 주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이슬람적 관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체지역에서 암매장은 있을 수 없는 야만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부군의 이러한 잔혹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많은 아체주민들을親 GAM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9년 7월 인도네시아 국군(TNI: Tentara Nasional Indonesia)에 의해 자행된 텡꾸 반따꾸아(Tengku Bantaqiah)³⁵⁾ 비롯한 50명의 제자 학살사건이다. 아체 북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해왔던 GAM군은 위의 학살사건을 계기로 아체 남부해안지역인 아체서郡과 아체남郡 주민들의 폭넓은 협조아래 군사활동 지역을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다(Pane 2001: 79~84).

V. 맺음말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표방해 왔던 수하르트가 하야한 후 대통령에 오른 하비비, 와히드는 아체 문제를 대화를 통해

에 가장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올라마였다. 바로 이러한 점을 아체 주민들은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아체서郡과 아체중郡 사이의 산간지방에서 따래갓 삐산뜨렌(수피즘을 추구하는 이슬람 사원)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GAM군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호신용 체력훈련을 시켜주었다. TNI에서는 이러한 그를 GAM 조직의 주요 일원이라 하여 제자들과 함께 사살한 후 암매장 해 버렸다(Pane 2001: 79~84).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메가와띠 또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제인들이 요구해 온 아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AD 법령 발효를 공포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법령 발효로 아제지역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제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법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저항세력들이 아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외지파견 군대의 철수, DOM 시기나 DOM 이후의 시기에 TNI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해결, 국민투표 개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친 정부세력과 분리독립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아제인들의 악감이 매우 깊은 상황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을 경우에는 GAM은 자유롭게 그들의 활동영역이 넓혀 나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시민단체 및 올라마들의 강경한 요구로 1998년 8월 DOM을 철폐하고 외지에서 파견한 군인들을 철수시켰을 때 GAM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주민들을 회유하여 그들의 동조자로 만들 적이었다.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인들을 처벌하는 문제 또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수많은 섬과 종족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일 국가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부의 역할 때문이었다. 군인들은 국가방위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도록 훈련을 받아왔다. 명령에 의해 움직인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군부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비록 수하르트의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세력에 밀려 군부의 입지가 위축되었지만, 아직도 이들은 NKRI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군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 개최요구 또한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다. 1999년 9월 동띠모르의 국민투표 결과 독립을 시켜준 오류를 또 다시 되풀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아제문제 해결에 놓고 3개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KRI

들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군부를 포함한 친 정부세력; 분리독립을 위해서 무장 게릴라전을 감행하고 있는 GAM 세력; 국민투표를 통해 아체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저항세력들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TNI를 포함한 친 정부세력과 분리독립세력으로 부터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다수의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주민들 또한 많은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담보로 하여 분리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GAM보다 평화적으로 아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 개척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들은 와히드의 방어전략에 의해 치안공백이 생기자, 방법대를 결성하여 주민들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PPRM과 AGAM의 전투과정에서 많은 피난민이 생기자 이들 구호에 앞장섰다. 대학생들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있지만, 이들 중 일부 단체가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군부로부터 의심을 받아오고 있다(Dhakidae 2001: 66~70).

이슬람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인도네시아 군도 서부지역을 장악했던 술탄이스칸다르무다(1607~1636) 시대의 왕조와 같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투쟁해 왔던 하산띠로는 현재 스웨덴에서 78세의 고령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와의 기본이념 차이로 GAM이 분열되어 있다. NLFAS의 비상각료위원회 제2 부수상이었던 후사이니 하산(Husaini Hasan)을 중심으로 MP-GAM을 결성한 反 하산세력은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한다(Putra 2001: 164). 하지만 하산띠로는 오히려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GAM의 기본 이념으로 정하면 반 이슬람적인 서방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역효과가 있다고 하여 거부하고 있다. 현재 아체지역 산간지방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AGAM 지부의 지도자들은 하산띠로가 리비아로 군사훈련 보낸 자들로, 다수가 하산띠로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계층은 하산띠로의 폭력적 해결방식에, 그리고 산뜨리들은 하산띠로의 탈 이슬람적 외교전략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일 아체가 분리독립된다고 가정하

더라도, 하산띠로가 아췌국의 국가수반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던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를 비롯한 동띠모르(Timor Timur) 분리독립세력과는 달리, GAM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췌분쟁이 국제분쟁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내반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췌지역 분리독립운동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북아 3개국 또한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과 영토보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또한 아췌의 분리독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무력 진압이 아닌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아췌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3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다. (1) 인도네시아가 아췌지역을 분리독립 시켜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승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1950년 이래로 존속되어온 NKRI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아췌의 미래를 아췌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저항세력들이 정부에 국민투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TKI와 GAM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아췌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동띠모로 경우처럼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3)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아췌지방에 폭 넓은 자치권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하르또 해야 후 하비비, 와히드, 메가와띠가 이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GAM 측에서는 아췌지역이 NKRI 틀 안에 있는 한은 어떠한 대화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아췌주민들은 2002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NLFAS와 인도네시아 정부대표 사이에 서명된 평화협상에 깊은 희망을 걸고 있다. 양측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아췌지역에 평화정착을 갈망하는 아췌주민들의 뜻이 6명의 아췌 출신 중립적 인사들을 통해 사전에 하산띠로를 비롯한 그의 핵심참

모에게 전달되었으며, 스위스 인권단체인 앙리뒤낭센터(HDC: Henry Dunant Center)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상물동량이 가장 많은 말라카해협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 일본, 태국 또한 평화협정체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양측은 적대관계 청산, GAM 무장해제, 정부군 철수, 2004년 총선을 통해 광범위한 자치권 제공, 유엔감독관 파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협정문에 서명하였지만, NFLAS와 아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GAM 세력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기 때문에 아체지역에서의 완전한 평화정착은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분리독립운동, 아체지역, 아체독립운동선언, 인권침해

참고문헌

- 베네딕트 앤더슨. 1992. "오래된 국가, 새로운 사회: 비교사적 시각에서 조망해 본 인도네시아의 신질서체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 『동남아 정치와 사회』PP. 123-156. 서울: 한울.
- 양승윤. 1998.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제대식. 1999. "인도네시아 군부와 이슬람 세력간의 역학관계: 어제와 오늘." 『한국이슬람학 회논총』 9:121-161.
- Al-Chaidar et al. 1998. *Aceh Bersimbah Darah*. Jakarta: Pustaka Al-Kautsar.
- Aiyub, Rusdi. 1999. "Konflik Aceh dari GAM hingga ke DOM." Widjanarko, Tulus & Sambodja, Asep. *Aceh Merdeka dalam Perdebatan*. Jakarta: Cita Putra Bangsa: 98-105.
- Ali, Abdullah. 1999. "Aceh Dahulu, Sekarang, dan Masa Depan."

- Widjanarko, Tulus & Sambodja, Asep. *Aceh Merdeka dalam Perdebatan*. Jakarta: Cita Putra Bangsa: 3-14.
- Dhakidae, Daniel. 2001. *Aceh, Jakarta, Papua*. Jakarta: YAPPIKA.
- Dengel, Holk H. 1995. *Darul Islam dan Kartosuwirjo*. Jakarta: Sinar Harapan.
- Dijk, C. Van. 1993. *Darul Islam Sebuah Pemberontakan*. Jakarta: Grafiti.
- Forum Keadilan, 24 Des. 2000. "Syariah Islam Tanpa Politik Garam", No. 38.
- , 7 Jan. 2001. "Mencari Kembali Indonesia", No. 40.
- , 12. Ags. 2001. "Pertaruhan CutNyak Mega di Tanah Rencong", No. 19.
- Hars, Nasruddin. 1992. *Frofil Propinsi Republik Indonesia: Daerah Istimewa Aceh*. Jakarta: Yayasan Bhakti Wawasan Nusantara,
- Haris, Syamsuddin. 1999. *Indonesia di Ambang Perpecahan*. Jakarta: Erlangga.
- Ibrahim, Hasan. 1999. "Semua Orang Menyalahkan Saya." Widjanarko, Tulus & Sambodja, Asep. *Aceh Merdeka dalam Perdebatan*. Jakarta: Cita Putra Bangsa: 139-144.
- Ilyas, Yunahar, dkk. 1993. *Muhammadiyah dan NU, Reorientasi Wawasan Keislaman*. Yogyakarta: LPPI UMY dan LKPSM NU.
- Ishak. Otto S. 2000. *Dari Maaf ke Panik Aceh*. Jakarta: LSPP.
- Jihad. Abu. 2000. *GAM: Hasan Tiro dalam Pentas Perjuangan Bangsa Aceh*. Bekasi: Titian Ilmu Insani.
- Kartodirdjo, Sartono, dkk.. 1975. *Sejarah Nasional Indonesia VI*, Jakarta: P&K.
- Kompas, 24 Mar, 2000. "Jangan Sampai ada Negara dalam Negara"
- , 20 Jul. 2001. "RUU Nanggroe Aceh Darulsalam disetujui"
- Liddle, R. William. 1995. "Islam and Politics" dalam Seminar Islam di Asia Tenggara, Jakarta.
- Pane, Neta S. 2001. *Sejarah dan Kekuatan Gerakan Aceh Merdeka*. Jakarta: Grasindo.
- Putra Tgk. Lamkaruna. 2001. *Perjalanan Panjang Aceh Menuju Islam Kaffah*.

Bekasi: Titian Ilmu Insani.

Ricklefs, M.C. 1993. *Sejarah Indonesia Modern* (terj. Dharmono Hardjowidjono).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Sjamsuddin. Nazaruddin. 1990. *Pemberontakan Kaum Republik Kasus Darul Islam Aceh* Jakarta: Grafiti.

———. 1999. *Revolusi di Serambi Mekah*. Jakarta: Penerbit Universitas Indonesia.

Sulaiman. M. Isa. 2000. *Aceh Merdeka: Ideologi, Kepemimpinan dan Gerakan*. Jakarta: Al-Kautsar.

Syadily, Hassan 1980. *Ensiklopedi Indonesia*. Jakarta: Ichtiar Baru-Van Hoeve.

Tippe, Syarifudin. 2000. *Aceh di Persimpangan Jalan*. Jakarta: Pustaka Cidesindo.

Abstract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Aceh Separatist Movement in Indonesia

Je Dae-Sik

(Sungsim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There have been tremendous changes and confusion in Indonesia. Especially the Separatist Movement developing in the Aceh and Irian areas have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of neighboring SE Asian countries and NE Asian countries. The trouble can be considered as a political panic in Indonesia, which might bring a secondary effect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a similar situation.

Recent separatist movements in the Aceh area seem to be threatening unified Indonesia.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the Indonesian government might allow limited autonomy to the Aceh area and can maintain the present unified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is another possibility. Or it can yield to the demand of the separatists. All these possibilities depend on such factors as separatists' strategy, Indonesian government's reaction, changes in the Indonesian political composition, military authorities' response, and diplomatic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ause and possible future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fore the declaration of GAM, between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e Separatist in the Aceh area,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flict will be examined.

From examining the Indonesian military authoritie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government's succeeding management process, and economic exploitation, this study tries to infer a future for the Aceh area.

Key words: Separatist Movement, Aceh area, declaration of GAM, Infringement of human rights